

梁啓超의 『西學書目表』 내용 분석*

The Content Analysis of Liang Qi-chao's *Xixueshumubiao*

정 성 미 (Jeong, Seongmi)**

송 일 기 (Song, Il-Gie)***

◁ 목 차 ▷

1. 서 언	3.1 부권의 수록현황
2. 本編의 분석	3.2 서양인 번역서 분석
2.1 본편의 수록현황	3.3 중국인 저술서 분석
2.2 번역자 분석	4. 識語·圈識 분석
2.3 각인처 분석	5. 결 언
3. 附卷의 분석	<참고문헌>

< 초 목 >

이 논문은 중국의 양계초가 간행한 근대 서학 목록서 『西學書目表』의 내용을 분석한 글이다. 本編의 경우 西學諸書 130종, 西政諸書 168종, 雜類之書 54종이 수록되어 사회과학 분야의 서적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였다. 자연과학분야는 醫學 중수가 가장 많고, 사회과학 분야는 兵政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국인 선교사 傅蘭雅가 88종의 가장 많은 서학서를 번역하였고, 강남제조국에서 간행한 번역서가 121종으로 가장 많은 종수를 차지하고 있다. 附卷은 총 293종의 서적이 수록되어 있다. 통상 이전 서학서는 湯若望이 번역한 것이 24종으로 가장 많았다. 근역 서학서의 경우 역사류가 14종으로 가장 많고, 제조국본이 55종으로 가장 많았으며, 傅蘭雅가 38종으로 가장 많은 서학서를 번역하였다. 중국인 저서의 경우 游記類가 48종으로 전체의 약 3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위의 기록 사항은 識語와 圈識를 기록하여 필독 도서를 표시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要語: 서학서목록, 양계초, 서학서목록, 중문번역서, 분류 체계, 부란야

* 이 논문은 2016년도 중앙대학교 연구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ktl134@naver.com) (제1저자)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gsong@cau.ac.kr) (교신저자)

접수일: 2016년 12월 8일 최초심사일: 2016년 12월 19일 심사완료일: 2016년 12월 26일

<ABSTRACT>

In this study, analyzed are the content of China's modern book-list *Xixueshumubiao* (西學書目表) which is written by Liang Qi-chao, and contains book-list about western learning. The main chapters contains 130 editions of natural science, 168 editions of social science, 54 editions of general books, so almost half of reconciliation was social science books. Medicine has accounted for most in natural science, and military science was main subject in social sciences. John Fryer (British missionary) was the most often found translator who was translating 88 editions, and "Jiangnan zhi zao ju" the most often found publisher which was translating 121 editions. the supplement has listed a total of 293 editions. In Western learning translation of before commercial treaty, Adam Schall was the most often found translator who was translating 24 editions. In not printed translation, History has accounted for most in natural science, and John Fryer was the most often found translator who was translating 38 editions, and "Jiangnan zhi zao ju" the most often found publisher which was translating 55 editions. In compiled by the Chinese about Western, Travel books are account for 30% as 48 editions. This items have following characteristic, It has notes and circle symbol for marking must-have books. Through this study, I can see Western Learning book-lists in last days of Qing dynasty, and transitional classification system at that time.

Key words: *Xixueshumubiao*, Liang Qi-chao, Western learning Bibliography, Chinese Translation bibliography, Classification System, John Fryer

1. 서 언

청나라 말에 근대적 서양 학문이 본격적으로 수용되면서 당시 중국 지식인에게 전통 학문에 대한 커다란 변화를 가져 왔다. 특히 19세기 아편전쟁 이후 중국은 서양 문명을 대응함에 있어 단순한 수용과 관심이 아닌 근대문명을 형성한 서양인들의 정치와 사회, 사상과 철학에 대한 전반적인 탐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서양 학문을 습득할 수 있는 西學書의 보급이 활발해졌으며, 선교사들과 계몽 활동가들 중심으로 서학서의 번역과 출판, 교육 등이 조직적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중국은 이미 16세기 말부터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과 함께 수많은 서학서가 유입되기 시작하여 점차 서학에 대한 열망이 강하게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청말 무렵에는 서학이 본격적으로 수용되면서 수많은 번역서가 발행되었고, 또한 서양 학문의 전파와 체계적인 독서지도를 위해 체계적인 서학서 목록이 필요하게 되었다. 근대의 중국 지식인들은 이러한 흐름을 받아들여 전통적 사분분류를 벗어난 근대적인 구미의 목록체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중국의 근대 개혁과 중 대표적 인물인 양계초는 중국 전통 학문과 서학에 대해 깊이 있는 학식을 바탕으로 국민사상과 정치사상, 학술사상, 사회문화, 신문, 언론, 목록학, 문학을 아우르는 서양학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는 국가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서구 열강을 바로 알아야 하고, 서양서 중에서 가장 우수하고 중요한 책을 열독하여 세계 각국의 문명과 국제 정세의 원인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이른바 ‘中體西用’의 사상을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목록학은 학술사상을 일반에 전파하고 민중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사회·정치적 역할을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목록이 사상을 전파하고 민중을 계몽하는 도구적 역할을 잘 견비하고 있음을 착안하여 目錄書를 편찬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西學書目表』(이하 『西書表』로 줄임)이다. 양계초의 『서서표』는 기존의 전통적인 도서 분류법인 사부에서 벗어나 보다 근대화 된 서구적 목록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 책目は 청말

봉건주의를 타파하고자 학술활동을 통해 중국의 계몽을 시도하였다는 점과, 전통적인 도서 분류에서 근대적 분류방법을 수용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 또한 양계초가 『서서표』에서 제시한 수록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당시 서학서를 번역했던 대표적인 번역자와 간행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필자는 이미 선행의 연구에서는 『서서표』의 이론적 배경과 목록을 바탕으로 편찬배경과 전반적인 구성 체제에 관해 서지학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양계초가 편찬한 『서서표』는 1896년 근대적 학술지 『時務報』에서 발표된 이후 質學會에서 집록한 質學叢書에 다시 수록되었고, 序例를 포함한 本編 上, 中, 下권과 附卷 1卷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序例에서 著書의 동기와 목적, 분류기준, 분류 방법과 이유를 설명하였고, 本編 3권에 352종의 서학서를 수록하고 附卷에 174종의 서학서와 119종의 중국인 저서를 수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¹⁾

그리하여 이번 연구는 그에 대한 후속 연구로서 『서서표』의 本編과 附卷에 수록된 서학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청말 당시 중국사회에 유통하였던 서학서의 경향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편과 부권의 서학서 수록 현황을 표로 재구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학서 번역자와 출판기관, 양계초가 독서지도를 위해 고안한 특수표식의 특징 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2. 本編의 분석

2.1 본편의 수록현황

本編 3권에는 모두 352종의 서학서가 수록되었고 書名, 撰譯人, 刻印處, 價置, 本數, 識語, 圈識 등 총 7요소의 기록 사항이 적혀있다. 일반적으로 선장 형태의 고서는 서지적 기본단위를 ‘卷’으로 삼고 이를 몇 권 단위로 모아 粧冊한 후에는

1) 송일기, 정성미, “梁啓超의 『西學書目表』 編纂考,” 『書誌學研究』 第57輯(2014. 3), 121-148.

‘冊’이란 물리적 단위로 표기한다. 이 서목에는 本數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어느 어느 책 중에’라는 주석이 달려 있는 서적은 단행본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格致彙編本”, “萬國公報本”, “時務報本” 등의 자구가 달려있고 그 아래에 本數와 가격이 표기되어 있지 않으면 단행본이 없기 때문이다.²⁾

<표 1>은 學·政·雜 각각의 下部에 수록된 서학서의 종수와 본수를 파악하고 전체 종수를 비율로 환산한 표이다. 본수는 단행본은 물론이고 叢書에 실려 있거나 혹은 잡지에 발표된 문헌이라도 모두 1本으로 셈하였다.

<표 1> 西學書目表의 서학서 수록현황

大類	各目	種數	전체비율(%)	大類別비율(%)	本數
西學書目表 上 (37%)	算學	22	6	17	77
	重學	4	1	3	23
	電學	3	1	2	8
	化學	12	3	9	68
	聲學	3	1	2	4
	光學	5	1	4	7
	汽學	3	1	2	3
	天學	6	2	5	11
	地學	9	3	7	16
	全體學	11	3	9	29
	動植物學	7	2	5	7
	醫學	39	11	30	106
圖學	6	2	5	10	
西學書目表 中 (48%)	史志	25	7	15	92
	官制	1	0	1	1
	學制	7	2	4	8
	法律	13	4	8	89
	農政	7	2	4	7
	礦政	9	3	5	27
	工政	38	11	23	155
	商政	4	1	2	6
	兵政	55	16	33	123
船政	9	3	5	21	

2) 梁啓超, 『西學書目表』 序例, 時務報館(1896), 張 4a.

大類	各目	種數	전체비율(%)	大類別비율(%)	本數
西學書目表 下 (15%)	遊記	8	2	15	24
	報章	6	2	11	44
	格致總	11	3	21	42
	西人議論之書	11	3	20	18
	無可歸類之書	18	5	33	34
합계		352종			1,060본

서양의 자연과학 서적인 上卷 西學諸書에는 총 130종의 서적이 수록되어 있고, 사회과학 서적인 中卷 西政諸書에는 168종, 기타 종합성 도서인 雜類之書에는 54종이 수록되어 있다. 사회과학 분야의 종수는 전체의 48%로 자연과학 분야보다 많은 서학서가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사회과학서가 많은 까닭은 변법운동이 서양의 군사무기 지식 습득에만 편중되었던 양무운동에서 오는 반성의 취지로, 그들의 기술뿐만이 아닌 근대적 체제까지도 받아들여 救國하고자 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小類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兵政類가 16%로 가장 많고 醫學類와 工政類가 11%를 차지하였다.

3개의 각 大類別로 세부 항목 간 종수 비율을 비교해보면 西學諸書 중 醫學類의 種數는 전체의 30%로 가장 많고, 算學이 17%로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序例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서양인이 중국에 세운 교회에서 번역된 서적은 醫學類가 가장 많은데, 이는 선교사들 가운데는 醫를 업으로 삼은 자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역자 중에 선교사를 겸한 의사의 수가 다수 있었다. 번역에 참여한 중국인 舒高第, 趙元益, 尹端模 등은 모두 의학을 공부한 자였으며, 영국 선교사 舍信(Hobson), 미국 선교사 嘉約翰(John Glasgow Kerr) 모두 의사를 겸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西政諸書의 경우 兵政類가 가장 많은 33%를 차지하였고 工政類는 23%의 종수를 차지한다. 戊戌變法 이전에는 서양의 군사 기술 도입에 편중되어 서학을 받아들였으므로 군사 관련된 번역서가 이미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兵政類와 船政類, 工政類의 종수가 많은 것도 그러한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雜類之書의 경우 無可歸類에는 분류되지 않은

기타 서적이 수록되어 있고 그것의 종수가 가장 많았다.

2.2 번역자 분석

『西學書目表』에 수록된 번역서들은 대부분 역관이나 서양학문을 소개하고 교육했던 기관에서 번역 업무나 교육 등에 종사한 중국인과 외국인들에 의해 번역된 결과물이다. <표 2>는 외국 번역자들의 번역 종수와 中文名, 本名, 生沒年 등을 조사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2> 외국 번역자의 국가 및 개인별 종수 분석

國籍	中國名	本名	種數	국가별(%)
영국 (19인)	傅蘭雅	John Fryer(1839-1928)	88	143종 (58%)
	李提摩太	Timothy Richard(1845-1919)	14	
	艾約瑟	Joseph Edkins(1823-1905)	10	
	偉烈亞力	Alexander Wylie(1815-1887)	6	
	合信	Hobson Benjamin(1816-1873)	6	
	德貞	John Hephun Dudgeon(1837-1901)	4	
	慕維廉	William Muirhead(1822-1900)	3	
	文教治	미상	1	
	羅亨利	Loch Henry Brougham(1827-1900)	1	
	蘭士得(路)	미상	1	
	立溫斯敦	Livingstone David(1813-1873)	1	
	何啓	Sir Kai Ho(1859-1914)	1	
	密斯耨	Misinuo	1	
	關斐迪	Frederic Galpin	1	
	慶丕	King Paul Henry(1853-1938)	1	
	韋廉臣	Williamson Alexander(1829-1890)	1	
	哈士烈	미상	1	
	哲美遜	George Jamieson	1	
	康發達	Kleinwachter, F	1	

國籍	中國名	本名	種數	국가별(%)
미국 (31인)	金楷理	Carl Traugott Kreyer(1839-1914)	21	87종 36%
	嘉約翰	John Glasgow Kerr(1824-1901)	12	
	丁韞良	William Alexander Parsons Martin(1827-1916)	9	
	林樂知	Young John Allen(1836-1907)	5	
	嚴良勳	John Blair, Jr.(1732-1800)	4	
	赫士	Watson Mcmillen Hayes(1857-?)	4	
	狄考文	Calvin Wilson Mateer(1836-1908)	3	
	韋廉臣	Alexander Williamson(1829-1890)	3	
	潘愼文	미상	2	
	瑪高溫	Daniel Jerome Macgowan(1814-1893)	2	
	卜舫濟	Francis Lister Hawks Pott(1864-1947)	2	
	柯爲良	Dauphin William Osgood(1845-1880)	1	
	庫嘉立	Caleb Cook Baldwin(1820-1911)	1	
	薛承恩	Nathan Sites(1830-1895)	1	
	戴集	J. W. Davis	1	
	求德生	미상	1	
	狄就烈	Julia Brown Mateer	1	
	洪士提反	Hunter Stephen Alexander	1	
	裨治文	Elijah Coleman Bridgman(1801-1861)	1	
	謝衛樓	Sheffield Devello Zelotes(1841-1913)	1	
	潘雅麗	Alice S. Parker	1	
	李安德	Leander W. Pilcher(1848-1893)	1	
	博恆理	Henry Dwight Porter(1845-1916)	1	
	範約翰	John Marshall Willoughby Farnham(1829-1917)	1	
	伍定	Simeon Foster Woodin	1	
	夏察理	Hartwell Charles(1825-1905)	1	
	合巴禮璉	미상	1	
	畝音	Martha Foster Crawford(1830-1909)	1	
	高第丕	Tarlton Perry Crawford(1821-1902)	1	
	郭顯德	Hunter Corbett(1835-1920)	1	
	範約翰	John Marshall Willoughby Farnham(1830-1917)	1	

國籍	中國名	本名	種數	국가별(%)
독일 (5인)	花之安	Ernst Faber(1839-1899)	3	7종 (3%)
	瑞乃爾	Schnell Theodore, H(-1897)	1	
	羅第愛	미상	1	
	雷諾	미상	1	
	來春石泰	Albin Freiherr von Reitzenstein(1852-1927)	1	
프랑스 (2인)	畢利干	Anatole Adrien Billequin(1837-1894)	2	3종 (1%)
	晃西士	Garnier, Marie François Joseph(1839-1873)	1	
이탈리아 (1인)	利瑪竇	Matteo Ricci(1552-1610)	2	2종 (1%)
일본 (2인)		岡本監輔(1839-1904)	1	2종 (1%)
		石井忠利(?-1899)	1	
몽고 (1인)	鳳儀		1	1종 (0%)
합계			245	100%

번역에 참여한 서양인 중 영국인은 총 19명이 143종을 번역하였고, 이 중 傅蘭雅가 88종의 가장 많은 수를 번역하였다. 미국인은 총 31명이 참가하였고 87종을 번역하였으며, 金楷理가 21종의 서학서를 번역하였다. 그 밖의 국적을 가진 자는 총 11명으로 15종을 번역하였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몽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영국인 선교사인 부란아(John Fryer, 1839-1928)는 1861년 영국을 떠나 첫 2년 동안 홍콩 신학교와 상해 中國英學校의 교장 등으로 종사한 인물이다. 통역관으로 서양 문헌의 번역에 종사하면서 『格致集編』이라는 과학월간지를 창간하였다. 그는 12년간 강남제조국에서 대표 번역가로 종사하였는데, 자연과학, 수학, 기술 전반에서부터 법률, 역사 등 수많은 서학서를 번역함으로써 중국인의 서양 지식 학습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가 번역한 서적으로 『三角數理』, 『算式集要』, 『電學圖說』, 『蟲學論略』, 『居宅衛生論』 등이 있다.

金楷理(Carl Traugott Kreyer, 1839-1914)는 미국의 침례교 선교사로 1866년

포교를 위해 중국으로 건너와 항주에 침례교회를 세웠고, 1870년 강남제조국의 번역가로 활동하게 되었다. 그는 제조국에서 부란아와 함께 여러 서양 과학서를 번역하였고 그 수가 부란아 다음으로 많다. 제조국에서 그가 번역한 서적은 『行軍指要』, 『營壘圖說』, 『克虜伯砲說』, 『克虜伯砲操法』, 『喇叭吹法』, 『克虜伯砲腰箍砲說』, 『兵船砲法』 등 총 23종이 있는데 趙元益, 李鳳苞, 王德均, 華衡芳, 蔡錫齡, 朱恩錫, 和徐華가 필술하였고 이 중에서 이봉포와 반수가량을 함께 번역하였다. 譯書의 대부분은 그 내용이 군사 혹은 해사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은 양무운동의 목표가 군사적인 부분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³⁾

이제마태(Timothy Richard, 1845-1919)는 1869년 영국 침례교 선교회의 파송을 받아 중국 산둥과 연태에서 선교활동을 하였고, 1876년 산둥에서 수재가 발생하자 수재민들의 구호사업을 하면서 중국 고위관리들과 접촉하였다. 그 후 산둥과 산서, 무창 등지에서 曾國筌, 左宗棠, 李鴻章 등과 교류하며 중국 정치와 사회 개혁에 관여하였다. 1890년부터 1916년까지 광학회의 총간사를 맡았고 同文書會를 주관하면서 사회개혁 진행을 통해 청말 유신과 개혁인사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⁴⁾ 그는 『泰西新史攬要』, 『天下五洲各大國志要』, 『列國變通興盛記』, 『農學新法』 등을 번역하였다.

정위량(William Alexander Parsons Martin, 1827-1916)은 미국 필라델피아 출신의 장로회 선교사로 1850년 중국행 배를 탔다. 절강에 있는 영파로 옮겨가 그곳에 정착하여 중국어를 학습하고 선교활동을 하여 5년 만에 四書를 독파하는 등 한문학습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중국인의 도움을 받아 상해에 머무르며 『萬國公法』을 번역하여 1864년 완성하였다.

<표 3>은 번역에 참가한 중국인을 번역 종수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3) 高田時雄, “金楷理傳略,”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1輯(2007), 260-276.

4) 吳淳邦, “清末 영국선교사 티모티 리차드의 基督教 文言翻譯小說 《喻道要旨》의 翻譯特性 研究,” 『中國語文論譯叢刊』第23輯(2008. 7), 53-90.

<표 3> 중국인 번역자 분석

譯者名	種數	譯者名	種數
徐壽	23	徐景羅	1
徐建寅	16	岡千仞	1
鄭昌棧	14	李慶軒	1
李鳳苞	14	汪振聲	1
趙元益	13	雅蘭布	1
舒高第	10	謝洪賚	1
華蘅芳	10	華備鈺	1
鍾天緯	8	黎汝謙	1
李善蘭	5	俞世爵	1
王德均	5	王振聲	1
沈敦和	4	張永燧	1
朱葆琛	4	翟汝舟	1
顏永京	3	程鑾	1
瞿昂來	3	江衡	1
鄒立文	3	劉維師	1
尹端模	3	鄧廷鏗	1
王韜	3	聯芳	1
韋門道	2	慶常	1
周鈞雨	2	黃達權	1
應祖錫	2	朱恩錫	1
徐華封	2	丁樹棠	1
蔡爾康	2	徐家寶	1
徐光啓	2	李鴻章	1
楊葆寅	1	丁乃文	1
趙如光	1	史錦鏞	1
李善蘭	1	顧祖榮	1

중국인은 총 52명이 번역에 참가하여 180종을 번역하였고, 徐壽가 23종, 徐建寅 16종, 鄭昌棧과 李鳳苞가 각 14종, 趙元益 13종, 舒高第와 華蘅芳이 각 10종, 鍾天緯 8종이고 나머지는 5종 이하이다.

서수(1818-1884)는 청나라 사람으로 字는 雪村이다. 서양의 자연과학을 널리

공부했고, 특히 공정제조에 정통했다. 同治 연간에 중국번의 막부에 있으면서 안경과 강녕의 기기국에서 근무했다. 華蘅芳과 함께 목제 운선 黃鵠號를 시험 제작했다. 이어 강남제조국에 들어가 서양 과학 서적을 번역하여 수백 종을 번역했다. 또 부란아와 함께 格致書院을 세워 서양 문화를 알리는데 일조하였다. 번역한 서적으로는 『化學鑒原』과 『西藝新知』, 『汽機發軔』, 『黑蠻風土記』 등이 있다.

서건인(1845-1901)은 1867년에 강남제조국에 들어가 병선 제조와 번역관 창립 및 서양과학기술서적 번역에 참여하였다. 1875년 山東機器局의 총관을 맡았고 1878년에서 1884년까지 독일 대사관에서 참찬으로 일하면서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해군, 병공, 병선 구매 등을 조사하였다. 역서로는 『造船全書』, 『兵學新書』, 『化學分原』, 『水雷錄要』, 『歐遊雜錄』 등이 있다.

번역한 중수별로 국적을 구분하여 비교해본 결과 번역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중국인이 42%로 번역 중수가 가장 많았고, 영국인이 34%, 미국인이 20%, 기타 4%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외국인 단독으로 번역하였거나 중국인과 합작하여 번역한 서학서가 많고, 중국인이 단독으로 번역한 것은 많지 않다.

2.3 각인처 분석

영어와 같은 서양 언어를 외교 문서에서의 준거로 삼게 된 이후로, 서양언어 및 관할과 고문에 능통한 통역관이나 번역관이 없었던 청 왕조는 외교상의 통역과 번역을 담당할 자국민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였다. 이를 위해 同文館과 같은 번역 교육 기구가 생겨났으며, 서양을 알리는 번역관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⁵⁾

양계초는 당시 대표적인 중국의 서학서 번역기관인 江南製造局, 京師同文館, 廣學會, 益智書會, 格致彙編에서 출판된 서학서 중에서 선정하여 『西學書目表』에 수록하였다.

5) 윤영도, “中國 近代 初期 西學 翻譯 研究,”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5).

<표 4> 刻印處別 발행종수

刻印處名	種數	刻印處名	種數	刻印處名	種數
製造局本	121	金陵刻本	5	美華書院	1
格致彙編本	44	北京刻本	4	博濟醫局	1
益智書會本	36	時務報館本	4	徐家匯印本	1
廣學會本	24	上海石印本	3	申報館本	1
廣州刻本	21	小方壺齋本	3	福州排印本	1
同文館本	15	萬國公報本	2	北京印本	1
上海排印本	12	金陵刻本	1	北京匯文書院	1
天津學堂本	8	南臺保福山	1	山東刻本	1
自刻(印)本, 通行本	7	上海印本	1	上海刻本	1
稅務司本	6	上海中印本	1	香港排本	1

상기 <표 4>는 『西學書目表』에 양계초가 기록한 각인처를 종수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 上, 中, 下 本編에는 강남제조국 판본인 번역서가 가장 많았다(121종, 전체 1/3). 그 외에 격치회판본이 44종, 익지서회 판본이 36종, 광학회 24종, 동문관 판본 15종이며 그 외에 판본인 번역서는 매우 적다. 廣州刻本의 경우 총 21종이지만 이는 인쇄기관이 아닌 인쇄된 지역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청조 말에 서양 서적 번역을 담당한 기구 중에서 오랜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번역서를 출판한 곳은 상해의 강남제조국에 부설된 번역관이라 할 수 있다. 강남제조국은 중국 청말의 정치가 이홍장과 중국번이 서양 근대의 과학기술을 수용하여, 구미 열강에 필적할만한 국력을 양성하고자 한 양무운동의 산물로, 총포, 탄약, 기선 등 군사무기를 제조하기 위해 상해에 세운 군수공장이다. 강남제조국번역관은 1868년 서양의 과학기술을 습득할 인재를 양성하고 서적을 번역할 목적으로 부설된 기관이다. 중국번은 서양의 과학기술과 시공기술 등의 서적과 간행물을 중국어로 번역하도록 지시하였다.

1865년 5월에 부란이를 정식 번역사로 임명한 것을 시작으로, 偉烈亞力(Alexander Wylie), 羅亨利(Henry Brougham Loch), 秀耀春(F. Huberty James), 金楷理(Carl T. Kreyer), 林樂知(Young J. Allen), 瑪高溫(Daniel Jerome MacGown), 衛理(Edward T. Williams) 등의 서양인과 중국학자 徐壽, 華蘅芳, 舒高弟, 李鳳

苞, 趙元益, 徐建寅, 鄭昌棫, 鍾天緯, 瞿昂來, 賈步緯 등의 중국학자들 중심으로 서적을 번역하였다. 그들은 兵學, 工藝, 兵制, 醫學, 礦學, 農學, 化學, 交涉, 算學, 圖學, 史志, 船政, 工程, 電學, 政治, 商學, 格致, 地學, 天學, 學務, 聲學, 光學 등의 방면에서 두루 번역하였는데, 최초 출판물로는 『運規約指』가 있다. 그 외에 『江南製造局譯書提要』와 『開煤要法』, 『談天』, 『地學淺釋』, 『佐治芻言』, 『西國近事彙編』 등 160종의 서양서적을 중국어로 번역하였다.

『格致彙編』은 자연과학 기간지로 聲·光·化·電 등 과학지식을 소개한 전문적 간행지이다. 강남제조국에서 번역관으로 일하던 부관아는 중국 지식인들이 강남제조국의 번역서를 읽지 않는 것을 우려하여 격치서원과 격치서실(서점)을 설립하고 과학기술을 소개하는 잡지 『격치회편』을 제작·발행하였다. 1876년 2월에 창간호가 출판되었는데, 이 책은 부관아가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손수 편집, 번역하고 자비로 인쇄하여 출판하였으며 1882년까지 모두 28책이 간행되었다. 격치회편본의 경우 격치서원에서 간행된 것이므로, 이를 강남제조국본이라는 표기가 아닌 ‘격치회편본’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1878년과 1879년에는 그가 영국으로 귀국한 2년간 정간되었다가 상해로 돌아온 뒤 복간하였고, 1890년에는 재간지로 그 형태가 바뀌었다가 1892년에 발행이 중지되었다.

익지서회는 근대 중국으로 건너온 선교사들이 설립한 저명한 문화 전파기구 중 하나로, 교과서를 번역하는 기관이었다. 1877년 상해에서 개최된 제 1회 중국 상해 선교사 대회에서 교육제도의 규범과 교과서의 편집, 신학 번역명의 확정 등 통일성 있는 구상이 필요함을 느끼고 7명의 선교사들로 구성된 ‘학교와 교과서 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이후 ‘中華教育會’, ‘中國教育會’, ‘中華基督教教育會’ 등으로 개명하였지만 이 기구의 대외적 호칭은 한결같이 ‘익지서회’였다.

익지서회의 주요 구성원은 미국 선교사 林樂知(Young John Allen), 狄考文(Calvin Wilson Mateer), 丁韋良(William Martin), 韋廉臣(Alexander Williamson), 傅蘭雅 등이 있다. 익지서회는 당시 많은 학당들을 위해 교과서를 編譯하였는데, 『圓錐曲線』, 『金石略辨』, 『天文揭要』, 『光學揭要』, 『西學樂法啓蒙』, 『中西四大致』, 『治心免病法』, 『化學衛生論』, 『熱學圖說』, 『百鳥圖說』, 『植物學』, 『幼

學操身圖說』, 『代數備旨』 등이 있다.⁶⁾

광학회는 1887년 영미의 개신교 선교사와 영사, 상인들이 상해에 설립한 중국 출판 기관이다. 중국의 지식인과 관리인 층을 계몽할 목적과 동시에 유럽 문화를 전파하는 기능을 하였다. 당시 중국 해관 총세무사였던 영국인 하트가 초대 이사를 맡고 선교사 韋廉臣, 李提摩太 등이 총 간사를 맡았으며, 그 외의 핵심인물로는 慕維廉·林樂知·丁達良·李佳白 등이 있었다. 북경·심양·천진·서안·남경·연대 등지에 기구가 있었고 각 지역에서 많은 서적과 신문·잡지 등의 간행물을 번역·편집·출판했다. 이곳에서는 매년 그리스도교 신학과 정치·철학·법률·교육·천문·역사·지리·박물·물리학·화학 등을 소개하는 책을 출판했다. 『萬國公報』, 『中西教會報』, 『大同報』, 『女星』 등의 다양한 간행물이 있고, 이중 『萬國公報』는 서양학문을 널리 알리고 정치의 개량을 고취하여 중국 사대부와 유신파에 큰 영향을 미쳤다.

동문관은 개화운동을 목적으로 중국인에게 외국어 번역을 가르치고 서양 지식을 보급하는 기관이다. 1862년 북경에 동문관이 세워졌고 그 다음 해 1863년에 상해에, 1864년에는 광주 등에도 동문관이 설립되었다. 여러 다른 지역에 새로 생겨난 동문관과 북경의 동문관을 구분하기 위해 북경 동문관은 경사동문관으로 명명하였다. 교수들과 학생들이 서양 서적들을 중국어로 번역했으며, 국제법·정치학·화학·물리학·자연철학 분야의 책을 출판했다. 『萬國公法』, 『全體通考』, 『中國古世公法』, 『格物測算』 등의 간행물이 있다.

상해는 19세기 후반부터 중국 굴지의 상공업 중심으로 급속히 성장함과 동시에 중국 근대 문화의 중심지로서,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른 지방에 확산시키는 중요한 기지였다. 당시 중국에 서양 문화를 소개하는 공공 기관으로는 경사동문관, 강남제조국, 광학회가 있었고 이 중 경사동문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해에 위치한 기관이다. 통계에 의하면 19세기 후반에 중국어로 번역된 서양 서적은 모두 556종에 이르는데, 그 가운데 상해에서 번역, 출판된 것은 473종이나 된다.⁷⁾ 이 중 강남제조국, 익지서회, 광학회 등의 번역본의 수가 다른 각인처

6) 丁西省, “益智書會與中國近代教科書的出版,” 『蘭台世界』 16期(2013), 31.

에 비해 월등이 많다.

『서서표』에서 간행처로 기록된 北京刻本, 北京印本, 上海刻本, 上海印本, 上海石印本, 上海中印本, 廣州刻本, 山東刻本, 金陵刻本이라는 표기는 기관명이 라기보다는 판각되거나 인쇄되어 간행된 지역을 뜻하는 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時務報館本, 萬國公報本이라고 표기된 것도 각인처가 아닌 서학서를 수록한 학술지명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自印本, 自刻本이라 기록된 것은 기관이 아닌 역자 개인의 자비로 인쇄하거나 판각된 것을 말하고, 通行本 또한 간행기관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3. 附卷의 분석

3.1 부권의 수록현황

附卷은 通商以前西人譯著各書 86종, 近譯未印各書 88종, 中國人所著書 119종으로 총 293종의 서적이 수록되어 있다. 附卷의 경우 本編에서 사용된 7개의 기록항목이 전부 사용되지 않고 그것의 일부를 차용하였거나 전혀 다른 형식으로 기록하여 각 주제별로 기록유형에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本編과 달리 주제별로 목록을 분석하였다.

本編의 경우 당시 간행된 서적을 수록하였지만, 이와 달리 附卷에서는 통상 이전에 번역되었거나, 번역을 마쳤지만 아직 인쇄되지 않은 최신의 서적을 따로 소개하였다. 즉 처음 중국에 서학이 유입될 당시 도입된 서양서와 최근에 갱신된 지식을 담은 서적을 전부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목록표의 이용자로 하여금 서학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 있게 함은 물론, 목록을 소장목적이 아닌 도서이용의 편리를 위해 제작한 양계초의 편찬 동기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7) 楊東平, 『중국의 두 얼굴: 영원한 라이벌, 베이징 VS 상하이 두 도시 이야기』(서울: 펜타그램, 2008), 60.

또한 중국인이 독자적으로 간행한 서학 관련 중국인 저서 중 참고할만한 도서를 함께 추천하였는데, 이는 목록서를 편찬할 당시 이미 중국인이 서양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서학을 논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의 표는 附卷의 각 주제별 수록 종수와 대류 내의 세부 항목 수록 비율을 환산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 5> 『西學書目表』 附卷의 수록현황

大類	各目	種數	比率(%)
通商以前西人譯著各書	利瑪竇	9	10
	瑪吉士	1	1
	熊三拔	3	3
	陽瑪諾	1	1
	艾儒略	5	6
	鄧玉函	4	5
	湯若望	24	28
	羅雅谷	18	21
	畢方濟	1	1
	高一志	1	1
	孟儒望	1	1
	南懷仁	12	14
	恩理格	1	1
	穆尼閣	1	1
	戴進賢	1	1
	杜德美	2	2
蔣友仁	1	1	
近譯未印各書	算學	11	13
	化學	1	1
	光學	1	1
	電學	1	1
	天學	7	8
	地學	7	8
	全體學	3	3
	動植物學	3	3
醫學	3	3	

大類	各目	種數	比率(%)
	圖學	4	5
	汽學	4	5
	史志	14	16
	法律	3	3
	礦政	4	5
	工政	6	7
	商政	3	3
	兵政	10	11
	船政	3	3
中國人所著書	地志	24	20
	交涉	13	11
	遊記	48	40
	議論	24	20
	雜錄	10	9
合計		293	-

<표 5>를 보면 附卷에서 사용된 서적 분류 기준이 本編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本編에서 사용된 3개의 大類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포함한 학문적 분류를 나타낸 것이었다면, 附卷의 대류는 단지 서적을 분류하는 주제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각각의 대류 아래에 분류된 소류 또한 通商以前西人譯著各書와 中國人所著書의 경우 학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분류가 아니라 대상 서적에 중점을 두어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기능적으로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近譯未印各書도 처음부터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으로 나누고 그것의 세부적 학문에 따라 서적을 분류한 것이 아니라, 수집된 미인쇄 번역본을 중심으로 학문적 분류를 한 것으로 보인다.

附卷에 기록된 서적은 서양 서적을 번역한 서학서와 함께 중국인이 서양에 관해 기록한 서적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附卷은 번역서와 번역서가 아닌 것을 기준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3.2 서양인 번역서 분석

서양인이 원서를 번역하여 편찬한 서적으로는 通商以前西人譯著各書와 近譯未印各書가 있다. 附卷에서 열거된 海禁 해제 및 통상 이전에 번역된 서양서적은 대부분 역법계산과 어록 종류이다. 양계초는 이것을 저자에 따라 분류, 배열하였고 그것의 叢書名을 기록하였다. 近譯未印各書는 근래 번역되었으나 아직 발행되지 못한 서적을 분류한 것으로 書名, 撰譯人, 撰譯處, 本數, 備考 5개의 기록항목과 총 18개의 소류로 분류되어 있다. 이들의 기록 유형에 따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이들 서적의 수록 사항을 상세히 분석해 보았다.

3.2.1 통상 이전의 西人譯著 분석

附卷에 수록된 통상 이전 서적은 총 17명의 저자를 기준으로 분류된다. 서학서를 소개한 번역자로는 利瑪竇, 熊三拔(Sabatinode Ursis, 1575-1620), 陽瑪諾(Emmanuel Diaz, 1574-1659), 艾儒略(Giulio Aleni, 1582-1649), 鄧玉函(Johann Schreck, 1576-1630), 湯若望, 羅雅谷(Jacques Rho, 1593-1638), 南懷仁, 杜德美(Jartoux, Pierre, 1668-1720) 등 중국에 서학을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선교사가 대거 포함되어 있다.

탕약망이 24종으로 가장 많은 서적을 번역하였고 나아곡이 18종, 남회인이 12종, 이마두 9종, 애유락 5종, 등옥함 4종, 웅삼발 3종, 두덕미 2종을 번역하였으며 나머지 9명(瑪吉士, 陽瑪諾, 畢方濟, 高一志, 孟儒望, 恩理格, 穆尼閣, 戴進賢, 蔣友仁)은 각각 1종씩 번역하였다.

중국에 서학을 알리는 일에 큰 역할을 한 서양인은 주로 선교 목적으로 중국에 건너온 경우가 많았는데, 예수회 선교사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인물로서는 이마두, 탕약망, 남회인 등이 있다.

이마두(Matteo Ricci, 1552-1610)는 중국 명대 말기에 활약한 이탈리아인으로, 신학과 철학은 물론 수학, 천문학, 역법, 시계, 지구의, 천체관측기구 제작법

등을 배웠다. 1578년 마카오에 도착하여 1583년에 羅明堅(Michele Ruggieri)과 함께 중국 최초의 천주교당인 선화사를 창건하여 포교에 힘썼다. 그는 <四書>를 라틴어로 번역하여 예수회의 중국 선교 일지로 볼 수 있는 회고록을 집필함으로써 유럽 중국학 연구의 시조가 되었고, 『交友論』, 『天主實義』, 『二十五言』 등의 저술과 유클리드 기하학의 번역서인 『幾何原本』을 서광계와 공역하는 등 동서 문명의 교류를 촉발시킨 장본인이라 할 수 있다.⁸⁾

탕약망(Johann Adam Schall von Bell, 1591-1666)은 독일 예수회 신부로서 중국에서 활약한 선교사이다. 천문·역법에 밝아 월식을 예측하여 명성을 얻었고 『時憲曆』을 저술하였다. 1618년에 사제서품을 받고, 중국 선교사가 되어 1622년에 중국으로 건너가 전도하면서 천문학서인 『崇禎曆書』를 서광계의 후원으로 번역하여 崇禎帝에게 바쳤다. 그는 당시 청나라에 불모로 가 있던 소현세자와 친분을 맺어 천문서적·과학서적·천구의(天球儀) 등을 선물로 하고 서양문물에 대해 교류하여 후의 조선 서학 수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⁹⁾

남회인(Ferdinand Verbiest, 1623-1688)은 벨기에 출신으로 1659년에 중국으로 건너가 전도에 힘쓴 인물이다. 그는 천문학과 수학에 능통하여 欽天監에서 탕약망과 함께 근무했다. 서양풍의 천문기기를 주조하고 그것을 해설한 『靈台儀像志』 16권과 세계지도격인 『坤輿全圖』를 편찬하였다.

양계초는 각 저자가 번역한 서적의 책명 아래에 그것을 수록하고 있는 총서를 기록하였고, “四庫著錄及叢書中有刻本者皆注出”이라는 설명을 함께 남겼다. 예를 들어 『同文算指』의 경우 “天學初函本, 海山仙館本, 四庫著錄”과 같은 叢書名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天學初函』, 『海山仙館』, 『四庫全書』에서 『同文算指』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총서명을 같이 기록함으로써 서적의 출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였다. 통상 이전의 서적이 대부분 명말 청초에 간행된 것이기 때문에 『서서표』를 이용한 독자들은 서적을 구매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四庫全書』나 『天學初函』의

8) 김상근, “명말 예수회 선교사 마테오 리치에 대한 새로운 평가,” 『선교신학』 12권(2006. 4), 73-107.

9) 김경미, “소현세자의 ‘칭’ 체험과 문화 수용,” 『한국문화연구』 10권(2006), 153-154.

경우 이미 잘 알려진 총서이기 때문에 검색이 용이하다. 따라서 이용자가 원하는 서적을 찾기 힘들 경우를 대비하여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이전의 서적을 가장 많이 수록하고 있는 총서는 四庫著錄本으로 총 38종이 있으며, 新法算書本 27종, 天學初函本 11종, 守山閣本과 海山仙館本 각 5종으로 조사되었다. 四庫著錄本이 가장 많고 新法算書本이 그 다음으로 많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四庫著錄은 청 황제 乾隆의 勅選인 중국 최대 총서인 『四庫全書』를 뜻하는 것으로, 乾隆 37년(1772) 四庫全書館이 개설되어 1782년에 완성되었다. 외국 서적을 포함하여 총 3,503부 79,337권을 經史子集으로 나누고 일곱 통씩을 등본하였다. 熱河의 文津閣, 北京圓明園의 文源閣, 紫禁城의 文淵閣, 奉天의 文溯閣 등 궁정에 4별, 그리고 민간에 열람시키는 3별을 합하여 총 7별이 만들어졌다.

新法算書本은 명말 崇禎年間に 예부상서 서광계, 이천경, 나아곡, 당약망 등이 서양의 시헌역법을 소개한 『崇禎曆書』를 뜻하는 것으로 일명 ‘新法曆書’, ‘西洋新法曆書’로 불리기도 한다. 勅撰으로 간행되었으며 32冊의 총 백 권의 분량으로, 『崇禎曆書』는 卷頭 서명 및 內題紙 서명이다.

『天學初函』은 明末의 유학자이자 천주교 신자였던 이지조가 理篇과 器篇으로 나누어 간행한 종교총서이다. 이편은 천주교학부로, 『天主實義』, 『職方外記』, 『辨學遺牘』 등 10편의 천학서로 구성되어 있고, 기편은 과학기술서로, 『泰西水法』, 『渾蓋通憲圖說』, 『幾何原本』 등 10편으로 되어 있다.¹⁰⁾

3.2.2 近譯未印의 西人譯著 분석

近譯未印各書는 算學, 化學, 光學, 電學, 天學, 地學, 全體學, 動植物學, 醫學, 圖學 등의 자연과학 분야와, 史志, 法律, 農政, 礦政, 工政, 商政, 兵政, 船政 등의 사회과학 분야의 서적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史志가 14종, 算學 11종,

10) 이수웅, 박영주, “『天學初函』을 통한 서양 종교의 조선 전래 연구,” 『기독교교육정보』 9권 (2004), 509-510.

兵政 10종으로 전체의 4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史志類가 다른 것에 비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本編에 실린 史志의 서적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사회과학 영역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兵政類에 관한 서적 10종을 신고 있어 군사 부문에도 소홀함이 없이 하였다.

撰譯處별 간행 종수를 살펴보면, 강남제조국본이 55종, 익지서회본 23종, 동문관본 6종으로 조사되었다. 앞의 本編에서 조사한 것과 비교해보면, 本編에서는 광학회와 같은 여타의 번역관에서 번역한 서적을 수록하거나, 간행된 지역에 관하여 기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近譯未印各書는 강남제조국, 익지서회, 동문관을 제외한 다른 기관의 번역서는 수록하지 않았다.

다음은 近譯未印各書의 역자를 국가별로 분류하여 그가 번역한 서학서의 종수와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표 6> 近譯未印書의 국가별 번역자

國籍	譯者名	種數	比率(%)	國籍	譯者名	種數	比率(%)
중국인	徐壽	23	15	서양인	傅蘭雅	38	25
	徐建寅	8	5		金楷理	7	5
	舒高第	7	5		林樂知	5	3
	趙元益	5	3		狄考文	3	2
	鄭昌棫	4	3		嚴良勳	3	2
	華蘅芳	4	3		韋廉臣	2	1
	徐家寶	4	3		甘弟德	2	1
	朱格仁	3	2		丁韞良	2	1
	李鳳苞	3	2		偉烈亞力	2	1
	李善蘭	2	1		薛承恩	1	1
	潘松	2	1		潘慎文	1	1
	江衡	2	1		范約翰	1	1
	蔡錫齡	1	1		江載德	1	1
	王德均	1	1		德貞	1	1
	汪振聲	1	1		畢利干	1	1
	賈步緯	1	1	費理飭	1	1	
黃宗憲	1	1	기타		10	7	

<표 6>을 살펴보면 부란아가 전체 1/4의 서학서를 번역하였고 서수가 15%를 번역하였다.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대부분의 역자들은 8종 이하의 종수를 번역하였다. 이는 앞서 조사된 것처럼 제조국본에서 66%의 번역본이 간행되었고, 제조국 대표 번역자인 서수와 부란가는 함께 共譯하여 많은 서학서를 간행한 바 있기 때문이다.

번역에 참가한 사람들을 국적별로 살펴보자면 중국인은 17명이 번역에 참가하여 72종의 서학서를 번역하였고, 서양인은 16명이 참가하여 70종을 번역하였으며 이 중 영국 41종, 미국 27종, 프랑스, 독일 각각 1종을 번역하였다. 그 외에 舍氏, 敗氏, 沙氏 등의 역자명이 명확치 않아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역자의 경우 모두 기타에 포함시켰다.

未印本은 총 66종이며 未譯成本이 11종, 付印未成이 2종에 이르고, 『代數學』, 『格物測算』, 『化學指南』, 『天文淺說』, 『地理問答』과 같이 “已佚”본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近譯未印刷類에 수록된 서학서는 이미 간행된 서적이 아니라, 인쇄가 끝나지 않았거나 번역이 완성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미인쇄본의 목록을 수집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 無可歸類에 수록된 『譯書事略』과 近譯未印刷類에 수록된 서적을 간행한 간행 기관을 통해 대략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었다.

『譯書事略』은 1880년 부란아가 강남제조국의 부속기관 번역관(혹은 廣方言館)의 설립과 서양 서적의 번역 과정 등을 정리한 책이다. 이에 관한 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제1장은 「論源流」로 1867년 강남제조총국의 설립, 번역관 설치 경위와 서양 과학서적 구입과정, 번역에 참가한 徐燾·賈步緯·李壬叔 등을 소개하였고, 제2장은 「論譯書之法」으로 번역관에서의 서양 서적 번역에 대한 원칙과 번역 과정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제3장은 「論譯書之益」으로 서양 서적 번역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한편 중국에 체류 중인 선교사들이 번역관의 번역서들을 학교 교재로 사용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제4장은 「論譯書各數目與目錄」으로 번역관 설치 이후 번역한 서적들을 중 번역이 끝나서 간행된 서적, 번역은 되었으나 간행되지 않은 서적, 번역이 끝나지 않은 서적으로 분류하

여 수록하고, 번역이 끝나 간행된 서적들은 저자와 역자, 간행연도, 부수, 가격을 수록하였다. 『譯書事略』 4장의 내용으로 보아 당시 번역이 끝났지만 인쇄되지 않은 서학서 목록도 수집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¹¹⁾

또한 강남제조국과 동문관, 익지서회는 당시 서학 문물을 소개하는 대표적인 번역 기관이었기 때문에, 변법운동을 주도했던 양계초가 그 목록을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3.3 중국인 저술서 분석

附卷에는 서양에 관해 소개하는 중국인 저서도 함께 수록하고 있다. 이는 엄밀히 말하면 서양인이 쓴 서적으로 보기는 힘들 것이나, 저자가 그것을 수록하였기 때문에 함께 분석하기로 한다.

중국인 저서는 地志, 交涉, 游記, 議論, 類錄으로 구분하였는데, 游記에 관한 서적이 48종으로 전체의 약 30%의 비율을 차지하고, 地志와 議論이 각각 24종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당시 중국인들은 외국의 문물을 배우려는 유학생과 학자가 많았기 때문에 서양을 여행하고 돌아와 그것을 기록한 기행문이 많았던 것 같다.

다음은 서양 문물에 관한 서적을 편찬한 저자의 종수를 나타는 표이다.

<표 7>을 보면, 저자는 총 110명으로 張德彝 6종, 王之春 5종을 썼고 나머지는 4종 이하로 조사되었다. 중국인이 간행한 서양에 관한 서적이 주로 기행문이나 논평이 많고, 소수의 저자가 다량의 서적을 著錄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각각 소량으로 쓴 것을 알 수 있다.

1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janggak.snu.ac.kr>> [cited 2016. 11. 30].

<표 7> 附卷의 중국인 저자

著者名	種數	著者名	種數	著者名	種數	著者名	種數
張德彝	6	松筠	1	葉瀚葉蘭	1	何如璋	1
王之春	5	夏燮	1	何秋濤	1	陳倫炯	1
錢恂	4	李小池	1	勞乃宣	1	張鵬翮	1
顧厚焜	4	斌椿	1	丁日昌	1	圖理琛	1
薛福成	4	宜扈	1	王錫祺	1	陳蘭彬	1
姚文棟	4	吳廣霈	1	鄒代鈞	1	錢德培	1
劉啓彤	3	蔡鈞	1	陳家麟	1	孫家穀	1
王韜	3	沈純	1	王詠霓	1	譚乾初	1
黃楸材	3	湯震	1	馬建中	1	曹廷杰	1
陳熾	2	陳屺	1	宋育仁	1	崔國因	1
李圭	2	宋恕	1	馮桂芬	1	會紀澤	1
黃遵憲	2	何啓	1	南海康先生	1	何樹齡	1
曾紀澤	2	崇禮	1	黃傳祁	1	譚嗣同	1
繆祐孫	2	黎庶昌	1	許景澄	1	李家鏊	1
馬建忠	2	鄭官應	1	丁壽祺	1	李鴻章	1
張自牧	2	徐延旭	1	李鳳苞	1	康有爲	1
徐繼畬	1	林謙	1	徐建寅	1	魏源	1
錢良擇	1	李鼎元	1	劉啓彤	1	盛慶紘	1
楊炳南	1	傅雲龍	1	郭嵩燾	1	劉錫鴻	1

본래 서양의 학문은 선교를 목적으로 중국에 들어 온 서양인 선교사들의 포교 과정에서 유입된 것이다. 중국어가 유럽의 언어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탄생된 근대 번역은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단계는 예수회 선교사 이마두가 중국에 입국한 1582년부터 예수회가 해산된 1773년까지로 이 시기에는 예수회 선교사들이 번역을 주도하였다. 제2단계는 百年禁敎가 해제되어 개신교 선교사들이 번역과 사전 편찬에 종사했던 19세기 초반이다. 제3단계는 林則徐·魏源·徐繼畬 등 이른바 경세파 학자들이 서양의 사정에 대한 활발한 저술활동을 펼쳤던 19세기 중반이다. 마지막 단계는 嚴復·馬建忠 등 서양의 언어와 학문에 정통한 학자들이 서양의 책들을 직접 중국어로 번역한 시기로 대략 청일전쟁 이후부터 1919년 5·4운동 때까지이다.¹²⁾

이를 통해 3단계인 19세기 중반부터는 이미 중국학자들의 서양에 대한 이해가 무르익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임칙서(1785-1850)의 『四洲志』, 위원(1794-1857)의 『海國圖志』, 서계여(1795-1873)의 『瀛環志略』 등의 출판물을 통해 중국인이 직접 서양의 지리와 정치, 사회를 소개할 정도의 소양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인이 서학서를 저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識語 · 圈識 분석

양계초는 識語¹³⁾라는 형식을 착안하여 서학서에 관한 해제가 아닌 책에 대한 감상이나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표의 맨 끝에 몇 줄의 노트가 덧붙여져 있는데, 이는 그가 예전에 학생들의 질문에 대답한 내용으로, 추천하는 서적의 장단점과 책을 읽는 순서, 책에 관한 내용 등 독서 지도에 필요한 것을 언급하였다. 전통적으로 중국 고서목록에는 해제를 수록하는 것이 보통이나, 서학서에 관해 간단한 부가 설명을 추가한 것이다. 또한 『서서표』의 ‘識語(지어)’와 함께 표의 제일 윗부분에 첨가한 ‘圈識’(동그라미 표시, 이하 ‘권지’로 읽음)를 통해 해당 서학서 중요 정도의 시각적 척도를 표시하였다. 양계초가 목록에 해당 서적의 중요도를 보이기 위한 방법으로 착안한 ‘지어’에 대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1) 책을 읽는 순서나 독서에 필요한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幾何原本』의 경우 “初學宜先讀前六卷”이라 지어하여 초학자는 마땅히 앞의 여섯 권을 먼저 읽을 것을 권하였다. 이 책은 본래 1605년 북경에서 이탈리아의 선교사 마테오리치의 口譯을 중국의 관리 서광계가 筆述한 것으로 원서 *Euclidis elementorum libri* 15권 중 앞의 6권으로 출판되었다. 후에 나머지 9권도 영국의 선교사인 위열아력

12) 양세욱, “근대어 성립에서 번역의 역할 - 중국의 사례,” 『세계어생활』 第22卷 1號(2012), 37-51.

13) 본문이나 서문·발문의 처음과 끝, 또는 전·후의 표지 안팎에 후인이 보탠 단문(短文).

과 청조 말의 수학자 이선란의 협력으로 전부 번역되었다. 지어에서 앞의 6권을 먼저 읽을 것을 제안한 것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 책의 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한 예를 들면 『數學啓蒙』은 “『數理精蘊』之節本極便初學”이라는 지어가 쓰여 있다. 이를 참조하면 『수학계몽』이 『수리정운』을 바탕으로 편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周羈知裁』는 “在西藝知新中”이라고 하여 서양의 기예와 지식이 있다고 하였고, 『代數備旨』는 중학교 교과서 수준의 代數 참고서 중 하나인데 “雖未備而便初學”이라고 하여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음을 미리 예고하고 있다.

黎汝謙이 번역한 『華盛頓傳』에는 “美國開國本末略備”라는 설명이 있다. 華盛頓은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을 뜻하는 것으로 그의 전기는 물론 미국이 개국한 일에 관한 자세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陸操新義』는 독일의 육군 훈련과 근대적인 군사 학술 교류에 관한 연구서이다. 이에 관해 “坊間繙刻改名德國續兵新書”라고 첨언하여 독일의 군사에 관한 서적임을 설명을 하였다.

遊記類에 수록된 서학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것의 내용을 지어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聘盟日記』는 러시아 상인 義迭思가 청나라 최고의 번성기를 이룬 康熙朝의 청대 정치, 군사, 경제 등의 번영에 관한 것을 기록한 것인데, “康熙間聘中國所記”라는 설명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探路日記』는 “探西藏雲貴”라고 쓴 것을 보아 티벳, 운남, 귀주를 탐사한 것이고, 『東埔寨以北探路記』는 “自西貢起游歷雲南四川等處”라고 하여 운남과 사천에서 사이공(西貢, Saigon)을 여행하는 기록에 대한 서적임을 알 수 있었다.

無可歸類에 있는 것은 대부분 그 내용이 복잡하여 분류하기가 쉽지 않은 서적을 모아놓은 것이다. 종교에 관한 서적인 『古教彙參』에 대해 “言印度埃及希臘舊教多可觀”이라 하여 인도의 불교를 포함하여 이집트, 그리스의 종교에 관한 책임을 강조하였고, 『救世教益』도 “傳教之書此爲最巧錄之以供備鑑”이라는 설명을 통해 종교를 전도하기 위한 내용임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 『聖會史記』와 『二約釋義叢書』는 “以上二書頗載西國古事故存其目”이라고 하여 외국의 역사에 관

한 기록임을 알렸고, 『昕夕閒談』은 “一名英國小說讀之亦可見西俗”이라는 첨언을 통해 영국소설임을 짐작할 수 있다.

3) 집본으로 구성된 경우 속편이나 후편을 함께 기록하거나, 함께 수록된 부록에 관해 표시함으로써 관련 서적을 빠짐없이 정독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상권의 化學類에 수록된 『化學鑑原』(1871)에는 “以下三書合成一書”라고 표시되어 있다. 서목의 순서상 『化學鑑原』 아래에 표기된 서적은 『化學鑑原積編』과 『化學鑑原補編』으로, 『화학감원』을 간행한 후에 속편과 보충서를 후편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化學考質』과 『化學求數』도 “以下二書合成一書”와 “即考質之續編”이라는 지어를 써서 서학서를 읽을 때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였다. 『考工記要』가 『工程致富』의 속편임을 독자에게 알리기 위해 “即工程致富之續編”이라는 부가설명을 덧붙였다.

『西藝知新』은 강남제조국에서 인쇄한 化學輯書로서 선본으로 칭해지는 서학서이다. 『서서표』에도 『西藝知新』에서 소개하고 있는 서적을 수록하고 있다. 工政類에서 “以下西藝知新八種”이라고 표시된 서적인 『匠誨與規』, 『造管之法』, 『色相留眞』, 『硫强水法』, 『卻水衣全論』, 『回熱爐法』과 兵政類의 『回特活德鋼礮說』, 算學의 『周冪知裁』 모두 『西藝知新』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光學』의 경우 “附視學諸器說”이라는 지어를 써서 『視學諸器說』이라는 관련서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江南製造局譯書彙刻』에도 “光學二卷視學諸器圖說一卷 英國田大理撰, 趙元益筆述”이라고 언급된 것으로 보아 『光學』에 부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¹⁴⁾ 『格致書院西學課程』에는 “附有數學題”라는 설명이 있는데, 이 서학서가 中卷의 學制類에 분류되어 있고 수학교육과 관련된 서적이기 때문에 수학문제가 부록에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생각된다.

4) 서적을 기록하는 방식이나 참고문헌에 관한 설명이 첨부되어 있다. 上卷 算學類에 수록되어 있는 『筆算數學』에서 “用俗語教學童甚便惟習問太絀”라고 말하면서, 『筆算數學』을 기록할 때 속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아동 교육에 있어 효용성이 크다는 감상을 표현했다. 실제로 吳洪成과 李兵은 “『筆算數學』是一部

14) 江南製造局, 『江南製造局譯書彙刻』(江南製造局, 1875-1908).

算術教科書, 其內容豐富, 講解清楚, 且又採用了白話文翻譯”¹⁵⁾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를 통해 『筆算數學』에 白話文¹⁶⁾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天學類의 『天文圖說』은 영국의 천문학자인 柯雅各의 천문학서를 번역하여 서구 천문학의 기본적인 내용을 그림과 함께 설명하고 있으며, 서구 근대 천문학에서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이 서적은 세밀한 선과 유려한 색으로 裝幀되어 있다. 양계초는 “圖極精美說亦簡明”라고 표시하여 서적에 수록된 그림이 지극히 아름답고 그것에 관한 기술도 명확하다고 설명하였다.

『談天』은 영국 천문학자 侯失勒(John Frederick William, 1792-1871)이 쓴 天文學書를 번역한 것으로 여타의 많은 천문학자들이 이를 참고하였다. 『天文揭要』 또한 “有所說補談天所未備”라고 하여 『談天』의 미비한 부분을 보충하여 설명한다고 말하고 있다. 全體學의 『知識吾門』에도 “尙有續篇未印成”이라고 하여 그것의 속편이 아직 인쇄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덧붙여 놓아 도서 내용뿐만 아니라 인쇄와 관련된 내용까지 상세히 설명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5) 『西學書目表』에 수록된 書名 이외의 異名에 대해 기록하였다. 『地理略說』은 미국의 戴集이 쓴 지리서로 내용은 『地理全志』와 비슷하지만 일반에게 더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 『地理淺說』이라는 또 다른 서명이 있었는데 “亦名淺說太淺而舊”라고 하여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 地學類의 『八星之一總論』에는 “初名地球奇妙論印入格致彙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조사해본 결과 『格致彙編』에 『地球奇妙論』이라는 지학서가 실려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¹⁷⁾ 역자가 같은 것으로 보아 『八星之一總論』의 초기 서명이 『地球奇妙論』이었고 그 서명으로 『格致彙編』에 실렸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6) 서적을 번역한 역자와 관련된 설명이 부가되어 있다. 上卷 重學類에서 『重學淺說』은 “在王氏西學輯存中”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서학서가 위열아력

15) 吳洪成, 李兵, “洋務運動時期西學科學與科技知識的引入及相關教科書的編譯,” 『亞太科學教育論壇』 4期(2003), 140-153.

16) 白話文은 중국의 백화운동에서 문어(文語)로 채택된 구어체(口語體) 언어로 일상생활에 쓰이는 언어였는데 이를 俗語로 보자면 梁啓超의 識語에서 밝힌 바와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17) 楊麗君, 趙大良, 姚遠, “『格致彙編』的科技內容及意義,” 『遼寧工學院學報(社會科學版)』 5卷 2期(2003), 73-75.

이 구역하고 王韜가 필록한 것으로 볼 때 여기에서의 “王氏”는 왕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왕도(1828-1897)는 청나라의 개혁사상가이자 번역가로 서학에 대해 직접 배우기도 하였으며, 『光學圖說』, 『格致新學提綱』, 『中西通書』, 『西國天學源流』, 『華英通商事略』, 『西學輯存六種』, 『西學原始考』, 『泰西著述考』, 『火器說略』 등 수많은 서학서를 번역한 저명한 학자이다. 양계초는 그러한 점을 강조하려던 것으로 보인다. 『西國天學源流』는 왕도가 海墨書館에서 위얼아력과 공동 번역한 친문학 서적이다. 지어에 “在叢園西學輯存中”이라는 설명이 있는데 왕도의 號가 叢園임을 감안할 때 이 또한 그의 서학 번역서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西醫略論』은 서양의 병리학 지식을 합신(enjamin Hoson, 1816-1873)이 소개한 책으로, 上·中·下 3권으로 되어 있고 내과 질환보다는 외과 질환들의 치료와 증상을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어 서양의 의학지식을 중국에 도입하는데 많은 공헌을 한 의서이다. “合氏各書繙譯最早故多舊法”이라는 설명을 보면 당시 의학에 관해 낡은 방법이 많아 합신이 다른 의서보다 빨리 번역하였음을 알 수 있다.

附卷 역시 서적을 소개함에 있어 서적의 편찬에 관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測量法義』에서 “此書或標徐光啓撰蓋當詩各書皆利口授而徐與李之藻筆述也”라고 하였는데, 서학서를 번역할 당시 이마두가 구술하고 이지조가 서광계와 함께 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圓容較義』와 『渾蓋通憲圖說』에도 “或標李之藻撰”이라는 첨언이 있어 이지조가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地球圖說』은 “何國宗錢大昕奉敕潤色”라는 설명을 덧붙여 何國宗과 錢大昕이 敕潤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첨언은 서적의 편찬사항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였다.

7) 수록된 서적의 장단점에 관해 말하였다. 장점을 말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西藥略釋』에 대해 “以所治證分類亦便”이라 하여 병세의 분류가 보기 편하게 되어 있어 약을 쓰는 것에도 그 효용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格致略論』과 『幼學操身』 또한 “勝於格致須利”, “有用”이라 하여 그 우수함을 설하고 있다.

그러나 『聯邦志略』과 『天下五洲各大國志要』에 대해서는 “甚簡” 혹은 “甚簡略”이라 하여 그 내용이 지나치게 간단한 것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하였다. 『格致須知』에 관해서도 “淺明嫌太簡”라고 하여 너무 간략하여 명확하지 못함을 말했다. 심지어 『教化議』는 “極可笑”라고 하여 직설적인 표현방식을 쓰기도 하였다. 『體用十章』은 “譯文劣”이라고 하여 번역의 수준이 낮음을 지적하고 있다.

8) 目錄의 편성 과정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倫敦鐵路公司章程』을 보면 工政 항목에 분류되어 있으나 “此書本不能入工政姑附於此”라고 하여 본래 工政에 들어올 수 없으나 잠시 두었다고 하고 있다. 이는 序例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모든 제도는 과학에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제도와 과학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없어 분류에 미흡함을 스스로 지적한 것으로 사료된다. 工政類의 『匠誨與規』에 보면 “以下西藝知新八種… 二種一歸兵政 一歸算學”이라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전체 8종 중 2종은 각각 兵政과 算學에 귀속되었음을 나타내었다.

9) 그 외에도 당시의 간행 상황과 시기, 독서 방법 등에 관해 설명하였다. 『中西聞見錄』은 同治 11-13년(1872-1874) 동안 청말 북경에 거주하던 선교사들이 창간한 과학기술 전달 목적의 월간잡지인데, “入停現甚難購所載亦太舊”라고 한 것을 보아 『西學書目表』를 발표할 당시 이미 정간되고도 20년 이상이 흘러 구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다.

『西國近事彙編』은 강남제조국에서 간행된 연속간행물인데 “自癸酉訖壬午凡九年”이라고 하여 처음 간행된 시기가 1873년(同治癸酉年)임을 밝히고 있다. 『化學初階』는 嘉約翰(Ke, John Glassgow, 1824-1901)이 번역한 화학책인데, 1870년에 간행된 것으로 되어 있고 『化學鑑原』은 1871년에 간행되었다.¹⁸⁾ “卽化學鑑原譯文不佳”라는 지어도 『化學初階』가 번역되고 곧이어 『化學鑑原』이 번역된 것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읽는 속도에 관해 첨언하기도 하였는데, 『格物入門』에서 “可緩讀”이라 하여 느리게 읽을 것을 권하였다.

한편 양계초는 서목의 윗부분에 圈識를 첨가하여 서적의 중요도를 가시화함으로써 독자들이 필독 서학을 선택하는 것에 도움을 주었다. 권지는 동그라미를

18) 黃啓震, “試論“炭”與“碳”的區別和用法, 『炭素技術』 4期(1986), 121-122.

표시하여 그 개수의 많고 적음으로 중요성의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표 8>은 『서서표』에 수록된 서학서의 권지 표시의 유무와 개수를 정리한 것이다.

<표 8> 圈識 표시 서학서

圈識 有無	圈識數	種數	比率	合計	比率
○ 無	—	418	65%	418종	65%
○ 有	○	86	13%	227종	35%
	○○	96	15%		
	○○○	45	7%		

<표 8>에 보이는 바와 같이 『서서표』에 수록된 418종에는 권지 표시가 없고 227종에만 표식이 되어 있다. 표식이 있는 227종의 경우 45종에 3개, 96종에 2개, 86종에 1개의 권지가 그려져 있다.

“最”라는 표현을 사용한 서적을 살펴보면, 『代數術』에 “最要”라는 지어과 함께 권지가 3개씩 표시되어 있고, 『化學材料名目表』에도 “中西文並列最要”라는 도움말과 함께 2개의 권지를 그려 目錄表에 있는 서학서 중에서도 중요한 서적임을 다시 강조하였다. 『談天』과 『佐治芻言』 또한 3개의 권지가 표시되어 있고 “最精善”, “最佳”라는 말이 각각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化學器』, 『格致彙編』, 『格致釋器』에는 “極要”라고 표시되어 있고, 『居宅衛生論』, 『化學衛生論』에는 “極有用”, 『泰西新史攬要』, 『萬國公報』는 “極佳”라고 하여 “極”이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모두 권지가 3개이다. “極淸”이나 “極便”을 쓰는 서학서의 경우에도 모두 2개 이상의 권지가 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便”이라는 단어도 심심찮게 등장하는데 『算式集要』의 경우 “便學者”라는 도움말을 썼으며, “便習”과 “便初學”이라는 말로 학습을 함에 있어 그 편리함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 밖에도 “要”, “頗”, “簡明”, “好” 등의 표현을 쓰기도 하였다. 종종 “難讀”이라고 쓰인 서학서도 눈에 띄는데, 이는 읽기 힘든 서적을 뜻함이고 중요도와는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代微積拾給』은 동그라미 표시가

1개 있지만 『化學闡原』은 없는 것을 보면 그것이 관계없다는 근거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어에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표현이 쓰인 서학서의 경우 “o” 표시가 모두 2개 이상이었고, “最”, “極”, “便”, “要”와 같은 표현이 함께 쓰인 경우도 있었다. 이것은 권지와 지어를 함께 표시하여 독자가 필독할 것을 여러 번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代數術』의 경우 “最”와 “要”가 함께 쓰였고, 동그라미 표시도 3개를 갖고 있어 꼭 읽어야 하는 필독서임을 강조하였다.

양계초는 이처럼 서학서를 단순히 소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장단점과 필독 순서를 함께 첨가하여 보다 실용적인 목록을 제시하였다. 권지와 같은 권점 표시는 현대에도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볼 때 이용자들에게 추천하기 위해 종종 이용되는 방식과 유사하다. 이러한 현대적 방식을 근대 목록에 활용했다는 점에서 당시 양계초의 『서서표』는 시대를 앞서는 목록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 언

이상으로 청말 양계초가 편찬한 『西學書目表』의 本編과 附卷에 수록된 서적과 수록항목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찰하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本編의 경우 西學諸書 130종(37%), 西政諸書 168종(48%), 雜類之書 54종(15%)이 각각 수록되어 있고, 이 중 사회과학 분야의 서적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자연과학[學] 분야는 醫學 39종, 算學 22종이고, 사회과학[政] 분야는 兵政 55종, 工政 38종, 史志는 25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변법운동 이전에는 군사학과 관련된 번역서가 많이 간행되었기 때문에 兵政類가 가장 많다.

둘째, 역자별 간행 종수를 비교해본 결과, 영국은 총 19명의 역자가 참여하였는데, 그 중 부관아가 88종에 달하는 가장 많은 서학서를 번역하였다. 미국은 총 31명이 참여하였고, 그 중 김해리는 21종의 서학서를 번역하였다. 중국은 52명의

번역자가 가담하였는데, 그 중 서수가 23종으로 가장 많은 서학서를 번역하였다. 그 밖의 국적을 가진 자는 총 11명으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몽고 등의 출신이었다. 참여 번역인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42%로 번역 종수가 가장 많았고, 영국인이 34%, 미국인이 20%, 기타 4%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서학서는 외국인 단독으로 번역하거나 중국인과 합작한 방식으로 번역하였고, 중국인이 단독으로 번역한 것은 그 수가 많지 않다.

셋째, 刻印處別 간행 종수를 살펴보면 강남제조국에서 간행한 번역서가 121종으로 전체 1/3을 차지하고, 그 외에 격치휘편본이 43종, 익지서회 발행본이 35종, 광학회 24종, 동문관 15종이 있다. 발행지역이 상해에 위치한 번역 기관이 많은 것으로 보아, 당시 상해가 서양 문화를 받아들여 다른 지방에 확산시키는 학문적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附卷은 총 293종의 서적이 수록되어 있는데, 통상 이전에 간행된 86종, 미인쇄본 88종, 중국인 저술서 119종이다. 이 중 통상 이전 역서는 탕약망이 24종으로 가장 많은 서적을 번역하였고, 총서명을 밝혀 서적의 간행시기가 오래되어 구하기 힘든 서적도 검색이 용이할 수 있게 하였다. 근역미인역서의 경우 史志類가 14종으로 가장 많고, 각인처별 종수를 분석한 결과 제조국본 55종, 익지서회본 23종, 동문관본 6종으로 조사되었다. 부란아가 번역한 서학서가 38종으로 가장 많았고, 서수가 23종으로 그 다음으로 많은 번역을 하였다. 중국인 저서의 경우 游記類가 48종으로 전체의 약 3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저자는 총 110명으로 장덕이 6종, 왕지춘 5종을 썼고 나머지는 4종 이하로 다수가 소량의 서적을 편찬하였다. 다루는 주제도 과학과 같이 깊이 있는 내용이 아닌 기행문이나 논평을 다룬 것이 많았다.

다섯째, 양계초는 서학서에 관해 ‘識語(지어)’를 기입하여 해당 서적에 대한 내용 설명과 장단점 등을 첨부하여 독자의 도서 선택에 참고가 되게 하였다. 또한 ‘圈識(권지, ○)’를 표시하여 필독 순서를 표시하였는데, 권지가 있는 것은 227종이고 없는 것은 418종이다. 권지가 2개 이상 그려져 있는 서학서의 경우 “最”, “極”, “便”, “要” 등의 표현이 포함된 지어를 함께 표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기입 방식은 독자가 책을 필독 순위를 선택함에 있어서 참고를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서서표』는 중국 목록학 역사상 전통적인 사부 분류에서 근대 분류로 가는 과도기적 목록 체계로 볼 수 있다. 이 서목은 서양과학에서 저술한 서적을 소개하여 중국 근대사회 문화발전에 기여하였으며, 목록을 이용하는 독자가 보다 용이하게 서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현대적 방식으로 도서를 소개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독서 지도 목록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중국에 전래되어 번역된 『西學書目表』의 수록 내용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양계초의 『西學書目表』에 수록된 서학서가 이후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유포된 상황을 밝혀서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관해 후속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경미. “소현세자의 ‘칭’ 체험과 문화 수용.” 『한국문화연구』 10권(2006). 153-154.
- 김상근. “명말 예수회 선교사 마테오 리치에 대한 새로운 평가.” 『선교신학』 12권 (2006. 4). 73-107.
- 송일기, 정성미. “梁啓超의 『西學書目表』 編纂考.” 『書誌學研究』 第57輯(2014. 3). 121-148.
- 양동평. 『중국의 두 얼굴: 영원한 라이벌, 베이징 VS 상하이 두 도시 이야기』. 서울: 펜타그램, 2008.
- 양세욱. “근대어 성립에서 번역의 역할 - 중국의 사례.” 『새국어생활』 第22卷 1號 (2012). 37-51.
- 여경용, 왕진경 共著; 남태우, 송일기 共譯. 『中國目錄學思想史』. 대구: 泰一社, 2009.
- 오순방. “清末 영국선교사 티모티 리차드의 基督教 文言翻譯小說 《噲道要旨》의 翻譯 特性 研究.” 『中國語文論譯叢刊』 第23輯(2008. 7). 53-90.
- 윤영도. “中國 近代 初期 西學 翻譯 研究.”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5.

이강범. “康有爲 『新學僞經考』의 淵源과 經學 주장, 그리고 政治的 파악.” 『中國語文學論集』 第44號(2007. 6). 471-500.

이수용, 박영주. “『天學初函』을 통한 서양 종교의 조선 전래 연구.” 『기독교교육정보』 9권(2004), 509-510.

최민자. “梁啓超의 變法思想과 改革運動.” 『한국정치학회보』 第30輯 第2號(1996. 8), 59-78.

『江南製造局譯書彙刻』. 江南製造局. 1875-1908.

高田時雄. “金楷理傳略.”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1輯(2007), 260-276.

沈國威. “康有爲及其 『日本書目志』.” 『或問』 5號(2003). 55-56.

梁啓超. 『西學書目表』 序例. 時務報館, 1896.

楊麗君, 趙大良, 姚遠. “『格致彙編』의 科技內容及 意義.” 『遼寧工學院學報(社會科學版)』 5卷 2期(2003), 73-75.

艾克利. “論梁啓超의 新學書目.” 『西安外國語學院學報』 7卷 1期(1999). 66-68.

吳洪成, 李兵. “洋務運動時期西學科學與科技知識의 引入及 相關教科書의 編譯.” 『亞太科學教育論壇』 4期(2003). 140-153.

丁西省. “益智書會與中國近代教科書의 出版.” 『蘭台世界』 16期(2013). 31.

黃啓震. “試論“炭”與“碳”의 區別和用法.” 『炭素技術』 4期(1986). 121-122.

黃濤. “論梁啓超『西學書目表』의 文化價值.” 『江漢學術』 29卷 3期(2010). 61-65.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janggak.snu.ac.kr>> [cited 2016. 11. 30].